

서예 외길 이돈홍 '붓의 전쟁'

박원규·정도준 참여 '서예삼형 파주대전'
2월 29일까지 파주 헤이리 '갤러리 한길'

46년간 서예 외길을 걸어온 학정 이돈홍(66)씨가 '붓 끝에 꽃이 피는 꿈'(몽필생화·夢筆生花)을 꾸고 있다.

추사 김정희와 원고 이광사의 서예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그는 오는 2012년 2월 29일까지 경기도 파주 헤이리 '갤러리 한길'에서 '서예삼형 파주대전'(書藝三俠 坡州大戰)을 연다.

출판사 한길사 3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서단의 대표인 하석 박원규·서현 정도준씨 등 3명이 참여해 150여 점을 선보인다. 40년지기인 이들이 자존심을 걸고 대표작품을 선보인다는 뜻으로 '전시'(展)라는 개념보다는 '붓의 전쟁'(戰)이란 이름을 가져왔다.

이씨가 완성한 '학정체'는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필체다. 그의 초서와 행서는 견줄 작가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자신의 서예 철학이 담긴 '몽필생화'를 비롯해 무등산을 담은 산수와 글씨가 어우러진 '무등에 핀 매화'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예·행·초서 등 모든 서체를 두루 섭렵한 작품들로 학정체의 개성 넘치는 조형미와 리듬이 필화에 배어있



이돈홍 작 '몽필생화'

는 작품들이다.

최근에도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학정은 "붓이 없어도 글씨를 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서예를 꿈 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이들 세 명의 서예가를 비롯해 예술의전당 이동국 큐레이터와 초민 박용설 서예가가 5차례에 걸쳐 서예 특강도 연다. 또 서예·예·행·초서 등 모든 서체를 두루 섭렵한 작품들로 학정체의 개성 넘치는 조형미와 리듬이 필화에 배어있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5일 '인문학강좌Ⅱ' 열번째 강좌

강진 백련사 여연스님 '차의 미학'

따뜻한 차 한 잔 생각나는 요즘,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연중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강좌Ⅱ'에서 그윽한 차 향기를 전해준다.

오는 15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열 번째 강좌에는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이 강사로 나와 '차의 미학'을 주제로 우리 차의 소중함에 대해 들려준다.

국내 다도를 정립한 초의 선사가 말년을 보냈던 해남 일지암에서 직접 500여 평에 달하는 차밭을 가꾸는 등 평생을 '다인(茶人)'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여연스님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를 소개한다.

출가 후 '차'의 매력에 빠진 스님의



일지암 암자를 지냈으며 초의차 연구회를 설립하고 초의상 심사위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차 문화콘텐츠학과 책임교수, 한국차문화협회 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원 부설 한국차 품질평가교육원을 개설해 우리 차 산업의 기초를 확립했고,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을 송년회, 문화 공연 어때요

송년공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베토벤 '합창' 교향곡과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다.

서울의 경우 유니버설발레단과 국립발레단이 '호두까기 인형'을 동시에 무대에 올리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합창' 공연 횟수를 한차례 늘리는 등 두 작품에 대한 호응은 대단하다.

▲은 가족이 함께-발레 '호두까기 인형'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은 16일(오후 7시30분), 17일(오후 5시) 두차례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한다.

독일 작가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바탕으로 한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이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 인형과 과거의 나를 여행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쾌한 작품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지휘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소프라노 니나 운덴

'호두까기 인형' 풀버전, 다양한 캐릭터 재미 두배

광주시향,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관객과 함께

등장, 보는 재미를 더한다.

올해는 무엇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로 발레를 감상할 수 있어 완성도가 더욱 기대된다. 무용 작품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녹음된 CD가 아닌,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귀가 황홀해지는 공연이기도 하다.

지휘봉은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잡는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도 출연한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2-8716

▲한해의 마지막날-합창 교향곡
최근 2년간 한해의 마지막 날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제야음악회가 열렸다. 관객들은 한해를 보내고 함께 새해 카운트 다운을

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올해는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3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합창'은 연말 클래식 레퍼토리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특히 4악장에 실린 '환희의 송가'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곡이다.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지휘를 잡는 이번 무대에는 쟁쟁한 솔리스트들을 초청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니나 운덴과 메조소프라노 추희명(안양대 교수), 테너 하석배(계명대 교수), 베이스 함석현씨가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광주시립합창단과 순천시립합창단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무용단 '호두까기 인형' 공연 모습.

광주오페라단 음악극 '김치' 무대에

14~15일 빛고을문화관

김혜미씨 등 주역 출연

광주오페라단(단장 김기춘)이 음악극 '김치'를 무대에 올린다. 14~15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문화회관.

광주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오페라단은 창단 후 30년간 매년 다양한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 이번에 올리는 창작음악극 '김치'는 나혜철씨가 대본을 쓰고 허수현씨가 작곡한 작품으로 연출은 이범토씨가 맡았다.

전라도 어느 풍요로운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김치'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장이, 두기, 백이와 마음 착한

우렁각시 금지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작품이다.

우렁각시 금지의 존재를 모르는 두기, 마을 이장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두기를 유혹하는 금발의 미녀 햄백, 병들어가는 두기를 지극정성으로 살려내는 금지의 이야기 등이 아 기자가하게 전개된다.

주인공 금지 역으로는 소프라노 김혜미·이찬순씨가, 두기역에는 테너 고동현·김용복씨가 더블 캐스팅됐으며 장이에 바리톤 김치영·박홍균, 햄백에 소프라노 김진희·최은정, 메리에 소프라노 이수정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그밖에 이투스코랄합창단, 박선욱 돌음무용단, 리틀스쿨피아싱어즈, 풍물팀 등도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이올린의 고운 선율로~

양새미 독주회, 15일 문예회관

양새미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호주 출신 작곡가 제임스 펜버티의 '로망스', 줄리어드 음대 교수인 존 코렐리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현대음악을 들려준다.

또 카차투리안의 발레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가 편곡한 '샤브레 댄스', 글록의 오페라 '오프레와 유리디체' 중 '벨로디' 등을 선사한다.

호남예술제에서 4차례나 최고상을 수상, 두각을 나타냈던 양새미는 광주 예고 재학생 호주 퀸즐랜드 국립음악



원에 조기 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모나무르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앙상블 루미나시아 멤버로 활동중이며 전남대와 광주예고에 출강 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박수영씨.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무용협, 박금자 무용상에 이영애씨 선정

광주시무용협회(회장 김미숙)는 지난 10일 박금자 무용상(상금 100만원) 수상자로 이영애(전 시립무용단장)씨를 선정했다.

또 광주시무용협은 조소희(동신대 등 출강)씨가, 신인상은 신송현(광주시립무용단원)씨가 받았으며 전임 회장이었던 정혜경(송원대 교수)씨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영애

조소희

신송현

시상식은 지난 10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던 광주시무용협회 송년 회원 합동공연장에서 진행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www.geumsoojang.com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 예금주 박추환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